

광주, 미래 신산업 중심도시로 뜬다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 등 6대 핵심 사업 유치 성과 “사업별 호환·연계성 뛰어난 시너지 효과 극대화할 것”

한때 경제 변방 도시로 치부됐던 광주가 민선 7기 들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신산업 중심도시로 급부상하고 있다.

〈관련기사 3면〉

광주경제자유구역 지정을 비롯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 공장, 인공지능 중심도시 조성 등 광주를 넘어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지도마져 바꿀 굵직굵직한 6대 핵심 사업을 유치하는 성과를 낸 것이다. 각 사업별로 호환·연계성도 뛰어난 상호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것이라는 게 광주시의 설명이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민선 7기 들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6대 핵심 사업 유치에 성공했다.

지난 3일엔 호남권 17년 만에 기업활동의 산실인 광주지역 산업단지(4개 산단 437만1000㎡)들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는 성과를 냈다. 광주경제자유구역은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에너지 등 광주의 미래를 이끌 핵심 주력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어 투자유치 유발과 일자리 파급 효과 등이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 경제자유구역에는 2025년까지 기투자금을 포함한 사업비 1조2400여억원이 투입돼 내외국인 3만명 안팎을 수용하는 인프라를 갖추게 된다.

지난 15일에는 대한민국 최초로 ‘노(勞)·사(使)·민(民)·정(政)’ 상생을 통해 자동차 공장을 짓는 ‘광주형 일자리’가 정부의 ‘제1호 상생형 지역 일자리’로 최종 선정되는 경사를 맞았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으로 사업추진에 탄력을 받게된 광주형 일자리는 협력업체 등 간접 고용 효과를 포함하면 1만2000여개(직접고용 1000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6·25 한국전쟁 70주년 ... 참전용사들의 경례



25일 오전 광주 남구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열린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서 참전용사들이 국기에 대한 경례를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보인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23년만에 완성차 공장을 짓게 됨에 따라 양질의 일자리를 찾아 외지로 떠났던 지역 청년들이 다시 돌아오는 효과 등도 예상된다. 경제계에선 기본 연봉 3000만원대로 시작하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안착할 경우 ‘고비용 저효율’의 한국 경제체질을 바꾸고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도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광주의 미래를 바꿀 신산업 중 AI(인공지능) 중심 산업융합단지 조성 사업도 빼놓을 수 없다. 광주시는 지난해 1월 인공지능(AI) 중심 산업융합 집적단지 조성

사업을 정부의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유치하면서 미래산업 육성 토대를 마련했다. 당시 타 자치단체들은 도로 등 SOC 사업을 요청했지만, 광주시만 유일하게 미래산업 유치에 승부수를 걸어 예타 면제 사업을 따내는 성과를 냈다. 사업 부지는 광주 북구 첨단3지구 연구교육단지 내 66만1157㎡(20만평)으로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10년이다. 국비 2799억원 등 4116억원이 투입된다. 광주시는 현재 국내외 AI업체 14곳과 유치 협약을 맺었으며, 7곳은 이미 광주에 사무실까지 개소했다. 올해내에만 50개 업체 유치가 목표다. 광주시는 AI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 2만7500명, 창업 2000개, 인공지능 전문가 5150명을 양성할 것으로 보고 있다.

광주시는 이와 함께 지난달 지역 내 산업단지 중 노후산단을 리모델링하는 정부의 산단 대개조 사업도 유치해 각 산업별 시너지 효과는 물론 투자유치에도 날개를

달게 됐다. 정부는 광주 첨단·하남·빛그린 산단 등을 산단 대개조 사업지로 선정하고 3년간 7657억원을 투입한다. 이를 통해 신규 기업유치 369곳과 1만명의 고용 창출 등이 예상된다.

광주시는 이 밖에도 국내 최초로 남구 에너지 산단을 중심으로 7200억원 상당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정부의 ‘에너지 융복합단지’ 지정을 이끌어 냈으며, 빛그린·평동산단 일대에 전액 국비사업인 ‘정정공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유치해 국비 450억원을 확보했다.

이홍섭 광주시장은 “올해 마침내 광주가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광주 발전의 획기적 전기를 마련하게 됐다”면서 “특히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미래형 자동차와 인공지능, 에너지 등 광주의 미래를 담보할 핵심 주력 산업단지가 포함돼 있어 각 산업별 시너지 효과도 극대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 재점화

광주시, 7월부터 국회의원·주민 의견수렴 이해관계 복잡하게 얽혀 성사 여부 미지수

광주 자치구 간 경계 조정 논의가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7~8월 지역 국회의원들과 간담회, 정책협의회 등을 갖고 경계 조정과 관련한 의견을 묻기로 했다.

시는 경계 조정 추진으로 의견이 모이면 5개 자치구와 의회 등 관계자들이 참여한 준비 기화단을 재가동해 개편 대안을 마련하고 시민 여론을 수렴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2018년 시민 설문, 이해관계자 의견 조사와 함께 용역 연구를 통해 경계 조정을 추진했다. 당시 용역에서는 소·중·대 등 조정 폭에 따른 3가지안이 도출됐으나, 대상지 주민과 일부 지방의원 등의 반대로 채택이 무산됐다.

소폭 조정안은 북구 문화동·풍향동·두암 1~3동·석곡동을 동구로, 중폭 조정안은 이에 더해 광산구 첨단 1·2동을 북구로 편입하는 것이었다. 대폭 조정안은 북구 가다 선거구의 동구 편입, 광산구 첨단 1·2동 북구 편입, 광산구 나 선거구의 서구 편입, 서구 풍암자구의 남구 편입 등이 핵심 내용이었다.

이번에 경계조정이 추진된다 해도 기존 안이 다시 논의될지, 새로운 안이 만들어

질지는 논의의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동안 총선이 끝나면 논의됐다 각 중반반 등으로 무산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는 점에서, 예전처럼 별다른 결과 없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단 인구가 부족해 남구와 합쳐 2개 국회의원 선거구를 유지한 동구는 적극적인 반면 인구 유입이 활발한 광산구는 인위적인 조정을 반대하는 분위기다. 남·서·북구도 인구나 재정 규모에 따라 찬반이 갈리고 있다. 지난 3월 기준 동구 인구는 9만8628명으로 북구(43만3006명)의 4분의 1에도 못 미친다.

광산구는 40만5969명, 서구 30만292명, 남구 21만7810명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경계 조정까지는 자치구·주민 의견 수렴, 지방의원 의결, 행정안전부 승인 등 여러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며 “정치권과 주민 합의가 없으면 어려운 일인 만큼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했다.

광주는 2011년 10월 1일 동구 산수 1·2동을 북구로, 북구 풍향동 일부를 동구로 편입하는 경계 조정이 이뤄진 바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민 30년 숙원사업 이제는 풀자”

전남권 의대 설립 범도민 유치위 출범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사업인 ‘전남권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전남도와 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범도민 유치위원회를 출범시키고 유치 총력전에 나섰다.

〈관련기사 3면〉

25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무안군 삼향읍 전남여성가족재단에서 ‘전남권 의과대학 범도민 유치위원회’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행사는 ‘전남권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시민사회단체·관계기관 등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고 민간 주도의 의과대학 유치 역량을 결집을 위해 마련됐다.

한상원·마삼석 의과대학 설립 민간유치 공동위원장과 김영록 전남지사, 이용재 전남도의회 의장, 전경선 전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지역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대학교수 등 150여명이 참석해 유

치 결의를 다졌다. 참석자들은 이날 “전남도민의 건강한 삶을 통한 행복 추구를 보장받기 위해 전남에 의과대학이 유치되길 염원한다”며 “200만 도민의 힘을 모아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상원 공동위원장은 “의료환경이 열악한 그치지 않는 우리 전남에 온 도민의 역량을 끌어모아 이번 만큼은 반드시 의과대학을 유치하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전남도는 의과대학 유치를 위해 지난 30년간 정부와 국회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의과대학 유치는 도민의 숙원으로 남아있다”며 “전남에 의과대학을 유치해 지역발전을 견인해 나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사랑과 감사의 66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 ~ 2020]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www.kwangshin.ac.kr

지하철·시내버스 ‘마스크 갈등’	▶6면
복스 ‘책세상’	▶14·15면
KIA 양현종 명예회복 논란	▶18면

#PlayByYourRules

The New A-Class Sedan & The New CLA Coupé.

메르세데스-벤츠 공식딜러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에서 직접 경험하세요!





신성자동차

광주 전시장 (062)226-0001 & 화정 서비스센터 (062)376-2557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대로 1041(화정동)
 MB 인종중고차 광주 전시장 (062) 945-0007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16(수원동)
 소촌 서비스센터 (062)942-7200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603번길 20(소촌동)
 수안 서비스센터 (062)961-0090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방울대로 520(수원동)

정부 공인 표준 연비 및 등급
 · A 220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430kg, 자동7단), 복합연비: 12.7km/ℓ(도심연비: 11.2km/ℓ, 고속도로연비: 15.2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35g/km · A 250 4MATIC Sedan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15kg, 자동7단), 복합연비: 11.6km/ℓ
 (도심연비: 10.4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3등급, 복합CO2배출량: 148g/km · CLA 250 4MATIC (배기량 1,991cc,
 공차중량 1,550kg, 자동7단), 복합연비: 11.5km/ℓ(도심연비: 10.3km/ℓ, 고속도로연비: 13.5km/ℓ), 등급: 4등급, 복합CO2배출량: 150g/km
 ※본 연비는 표중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 상태, 운전방법, 차량 적재 및 정비 상태 등에 따라 실제 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상기 제품 이미지는 실 차량과 다를 수 있습니다.